

전남 서부권

해남~강진 국도 18호선 6.2km 4차선 공사

해남구간만 2차선 '논란'

국토부 "교통량 적다" 예산 지원 미뤄
주민들 "체증 유발·지역 불균형" 반발

해남지역에서 해남읍과 강진군을 단거리로 연결하는 국도 18호선중 해남구간(6.2km)을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비 752억원을 투입해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와 강진군 도암면 계리리를 잇는 국도 18호선 확·포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차선으로 이미 준공 통행되고 있으나, 해남 구간(옥천~도암)은 미착공 상태이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이 구간을 제2차 국토개발 2차 5개년계획(2005~2009년)에 반영시켜 지난 2005년 4차선으로 실시계획하고 주민 설명회까지 마쳤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국토개발 2차 5개년 계획' 가운데 미착수 사업에 대한 교통량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구간은 2031년 기준으로 교통량이 하루 1500여대로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남군 조사에서는 2003~20011년 평균 매일 6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연구원 교통량 예측 조사와는 큰 차이가 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해남구간 교통량이 전국 교통망 DB 체계에 따라 장래 교통량 기준(4차선기준 1만2000대)에 미달되고, 경제성마저 없어 2차선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은 용역을 2차선으로 확·포장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남지역 주민들은 도로



이용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병목현상 등 교통체증 유발과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남군도 앞으로 건설계획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와 우수영항 개발에 따른 해남~진도간 패속선 취항 등을 감안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앞으로 경남권 및 순천·여수·광양 등 동부권과의 원활한 물류수송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해남 옥천~강진 도암구간도 4차선으로 확·포장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남도청 맞은편에 지리한 중앙공원에 건축쓰레기와 폐기물, 생활쓰레기가 뒤섞인 채 방치돼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잡초·쓰레기 뒤범벅 남악신도시

전남교육청 입구 승강장·중앙공원 등 깨진 슬병·음식물 곳곳 방치

전남도교육청 입구 승강장 보도를 록에 잡초가 무성하다. 남악 중앙공원에도 깨진 슬병과 먹다 남은 음식물들이 곳곳에 방치돼 있다. 전남 행 정중심도시인 무안 남악 신도시에 잡초와 생활쓰레기 등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안군은 전남도교육청과 전남지

방경찰청 직원과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 앞 보도블록에 잡초가 자라고 있지만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시민 한모(45)씨는 "인도에 잡초와 생활쓰레기 등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군청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민원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현

장에 나와 도심주변 생활공간 실정을 파악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유지관리 용역 직원 13명과 공공인력을 두 파트로 나눠 공원 쓰레기 처리와 화장실 청소 등을 하고 있다"면서 "인도에 자라는 잡초 등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함평 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

고양·옥동지구 하수도 정비도

함평군은 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함평을 고양지구·대동면 옥동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나산면 삼축리 등 7개리에 걸

쳐 지난 2008년부터 5월까지 총 109억원을 투입해 21.33km에 이르는 하수관거를 정비했다. 또 함평을 고양지구에 총 사업비 18억원 투입해 지난 2010년부터 하루에 85t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오수관로 4.67km를 매

설하고, 대동면 옥동지구에 총 14억원을 투입해 하루 45t을 처리할 수 있는 오수관로 4.34km를 정비했다.

이번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군 하수도 보급률이 44%에서 49.4%로 5.4% 증가했다. 나산면 일대와 함평을 진양리, 대동면 상곡리 주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함평천과 고막원천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목포 홍일고 '명문고' 입증

수학경시대회 등 각종 경시대회 휩쓸어

목포 홍일고등학교(교장 장정석·사진)가 최근 열린 각종 경시대회에서 굵직한 상을 휩쓸고 있다. 5일 목포 홍일고에 따르면 최근 '2012학년도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펌프인 대회' 전남 예선에서 대상과 동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제 31회 전남 중·고 수학 경시대회'와 '제13회 전국 지리 올림피아드' 전남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홍일고는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한 학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학습력을 제고하는 '홍일 스타 디그립' 활동과 '국·영·수 무학년 보충 수업'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창의력 배양과 인성 함양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장정석 교장은 "교사·학생·학부모·학교법인인 한마음이 돼 '하반 된다'는 평범한 진리 속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성선기자 sslee@

세일골

"소통의회로 지역발전 이끌겠다"

배종범 목포시의회의장

"후반기에는 무엇보다 소통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배종범(53) 의원은 후반기 원 구성과정에서 빚어진 후유증을 의식한 듯 '주민과의 소통·의원 상호간의 소통'을 화두로 내걸었다.



한 다"며 "당과 계파를 떠나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소통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지방의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발전적인 비전을 견제하게 받아들여야

4선인 배 의원은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으며, 가족으로는 부인 이상단씨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전북

고창 수박·북분자주 국내외 '인기'

서울 롯데백화점 출품 '황토배기 수박' 연일 매진

베트남인 입맛 사로잡은 북분자주 주문물량 쇄도

고창지역에서 생산된 수박과 북분자주 등 농·특산물이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3일간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열린 세계 과일 박람회 '황토배기 명품수박'을 출품했다. 행사 기간동안 고창수박 500통이 모두 매진됐다. 강남점 1일 수박 판매량은 50통 정도이다. 이번 행사장에서 잠곡과 북분자, 블루베리 등 다양한 농·특산품도 함께 판매됐다.

이에 앞서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열린 '명품수박 출시전'에서 고창수박 한 통이 26만원에 낙찰되는 신기록을 세워 화제가 됐다.

또한 고창 북분자주가 뛰어난 맛과 기능성으로 베트남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배상면주자 고창LB(주)(대표 안재식)는 지난 3일 자사 북분자주 대표브랜드인 '북분자음'과 '빙탄복' 260박스(1600만원 상당)를

수출하기 위해 컨테이너 선적작업을 마쳤다. 연말까지 1억원 정도의 물량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출품은 베트남의 고급 레스토랑과 백화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북분자음'은 최상급 고창산 북분자만을 발효시켜 빚은 순한 술(알콜 함유량 12도)로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 지난해 한국식품관리원으로 부터 술 품질 인증을 받았다.

'빙탄복'은 북분자주에 탄산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동남아 등 무더운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올해 가을으로 북분자 생산량이 감소해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가공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북분자가 고가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덕진공원 연꽃 일품이네 4만3000㎡ 규모의 전주 덕진공원에 연봉홍색 연꽃이 5일 활짝 피었다. /연필뉴스

순창군 섬진강댐방류 주민 피해대책위

"홍수·댐 범람 대책 세워달라"

지난해 여름 폭우당시 범람 위기를 겪은 섬진강댐 인근 주민이 홍수와 댐 범람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순창 섬진강 하류 주민대표로 구성된 순창군 섬진강댐방류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 위원과 황수주 군수 등 7개 테마별로 41개 시설의 특성, 이용방법, 운영시간, 입장료 등을 자세히 실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그동안 종합적인 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책자가 없어 아쉬웠다"며 "리플릿 제작으로 관광객에게 종합적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관광 만족도를 높여주게 됐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건의서에 ▲섬진강댐의 적극적인 홍수·범람 예방 역할 ▲우기 때 홍수를 막을 댐 담수량 유지 ▲비농번기 때 방류 실행 ▲태풍 특보

발생 시 주민 대피 예보와 대응 ▲댐 관련사업 조기 완공 등을 담았다. 한편 지난해 8월 9일 전북 일부에

400여mm의 폭우가 내려 비물이 섬진강댐으로 유입, 댐 안전수위 1m를 앞두고 최고 경계령이 발령되면서 하류의 5개 시·군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전북도, 농림수산 경쟁력 발전기금 392억 증액

전북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도내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전기금을 392억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발전기금은 총 980억원 규모로 늘었다. 발전기금 사업은 농림수산 종사자에게 농산물 수매, 사료나 유류 구매,

가공·생산시설 구축 등의 자금을 저리(연리 2%)로 지원한다. 도내 발전기금 신청은 2008년 41억원에서 2010년 55억원, 올해 732억원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

도는 내년부터 기금을 1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신

전북대생 콘크리트 기술 경연대회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최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사)한국 콘크리트학회 주최로 열린 '콘크리트 기술 경연대회'에서 학생부 최고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의 주인공은 '노비스 2nd'팀(지도교수 소승영)으로 건

축공학과 장홍석·임용택·김민찬·이중찬·이흥수·김단비·한여진·박준준 등 8명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대회심사위원들로부터 '콘크리트의 유효성과 강도가 높고, 정확도 및 정밀도 등이 매우 우수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日 대표단 새만금·근대역사 박물관 시찰

일본 오키나와현 대표단이 5일 군산시를 방문해 새만금을 비롯한 근대역사 박물관 등을 시찰했다. 오나가 다케시 나하시장을 비롯해 시마부쿠로 시정촌 진흥협회 이사 등 3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문동신 시장과의 면담을 갖고 상호 우호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을 모색했다. 군산시와 일본 나하시는 지난 2010년 9월 일본 기업가인 고쿠바 회장 일행이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갖고 군산시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해양관광 및 경제분야 교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i@

순창군 특용작물 재배 80억 지원

순창군은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특용작물 분야에 8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지원된 사업비 54억보다 48% 증액된 금액이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10대 특화작물 식재지원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자재 인프라 구축 22억

원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묘묘장 등 10개 분야 35억원 ▲특화작물 고품질 생산시설 기반조성 23억원 등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과 특용작물 분야의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참뽕꿀' 등 기능성 꿀 상표 등록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참뽕 오디를 활용한 기능성 꿀을 생산, 특허청에 '참뽕꿀', '참뽕허니문'으로 상표 등록을 마쳤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참뽕꿀 사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오디즙을 양봉 사양기에 비

율별로 투입한 후 시험 사육해 채밀한 결과 기능성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부안군 소유 특허 및 지역 특산품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 문화관광 한눈에

문화지도 리플릿 제작

남원시는 최근 문화관광, 축제, 체험·휴양, 체육 등 주요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행복가득 문화충만 남원'이란 문화지도 리플릿을 제작했다.

양면 8쪽으로 제작된 리플릿 전면에는 관광무원,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등 26개의 시설을 지도에 표기해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또 KTX, 고속버스, 직행버스 운행 횟수와 배차시간 등 교통안내를 수록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후면에는 관광, 문화, 축제, 둘레길, 체험·휴양, 체육, 공연 등 7개 테마별로 41개 시설의 특성, 이용방법, 운영시간, 입장료 등을 자세히 실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그동안 종합적인 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책자가 없어 아쉬웠다"며 "리플릿 제작으로 관광객에게 종합적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관광 만족도를 높여주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